



유 상 수
충청남도 지역발전담당관

1. 성숙된 자치역량은 지역개발의 원동력

해방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우리 역사에서 여러 가지로 뜻 깊은 해가 될 것이다.

그것은 금년이 6.27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된 해로서 우리 주민의 의식과 수준이 지방자치를 향유할 만한 위치까지 성장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실시로 우리 사회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협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됨으로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애향심이 제고되고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인재가 서울로 집중되었으나 지역출신 인재가 지방으로 귀환하는 인재의 U턴 현상도 이루어지는 등 과거에 있었던 지방의 침체와 무기력은 사라지고 활기찬 지방자존의 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활기찬 분야는 지역개발분야일 것이다.

자치시대란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방간의 잘살기 경쟁 곧 지역개발의 경쟁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새로운 개발의 방향은 경영개념을 도입한 4대 권역별 개발경영계획의 실천을 통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함에 있다.

이러한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개발의 전망과 여건은 어떠한가 살펴보기로 한다.

2. 우리도의 지역현황과 특색

충청남도는 온화한 기후대에 위치하여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해 있고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지형으로 만이 잘 발달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차령산맥과 금강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자연지형과 지세를 결정지어 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여건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충남도가 공업·정보·관광의 중심기능 수행과 수



도권의 기능분담을 하는 등 21세기 국토발전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몇 가지 제약요인을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대전광역시 분리이후 지역구심기능 상실과 함께 공간적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둘째, 농업·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서 소득과 경제효과가 미흡하며

셋째,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취약하여 동서간 도로연결이 취약하고 대부분 2차선 도로이며 그 또한 과거 농로 위에 포장하는 식으로 하여 구배와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며, 항만은 접안능력의 한계로 소규모 시설만 되어 있어 대외무역기능이 미흡하다.

넷째, 환경오염과 생·공업용수의 부족이다. 산업화되면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산업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최근 서북부 신산업지대조성 등 서해안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생·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우리도의 개발여건 전망

1) 개발철학의 정립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우리 도는 지역개발의 이상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개발과 보전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양자는 상호 보완적 개념이다.

개발이 인간을 위한 개발, 즉 인본적 개발이 될 때 진정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연환경의 최적상태를 보전해 주지 않는 개발은 사람들의 이기주의만 충족할 뿐이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환경 파괴적 개발에서 앞으로는 인간을 우선하는 환경보전적 개발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과거에는 개발의 가치기준을 능률성에 두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두며 주민의 개발수요와 의사가 능동적으로 반영되는 참여적 개발(bottom up)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동일한 수준의 생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개발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지역에 중점적으로 개발의 이익이 환류되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각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이 반영되는 개성 있는 지역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

2) 4대권역 개발경영계획

충청남도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4대 권역별 개발경영계획”은, 충청남도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개발하는 구상을 말한다.

예컨대 금강치수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에 국비나 도비만을 들여서 제방을 축조하고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에 부존해 있는 골재자원을 매각해서 그 수입으로 제방도 쌓고 주운 개발하고 강변에 고수부지 공원도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평면적인 사고로는 국도비가 없으면 개발할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할 것이나, 경영개



발적 사고로는 지역의 상황과 특색·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주체 모두가 이익이 되는, 개발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여 혁신적 사고로 재원을 조달하고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권으로서 백제문화의 정비복원 및 청정지역 자연공원조성, 선진농업 종합연구단지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 맺는말

이 점이 단순한 개발과 경영 개발의 차이이며 우리지역의 출향인사, 부존자원, 국가의 건설방향, 국제적인 투자동향 등 검토 가능한 모든 요소를 연결시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우리 충청남도의 개발가능성은 무한하나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도민의 여망과 역량을 어떻게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잘못된 개발은 200년후에나 고칠 수 있다는 교훈을 잊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경영개발차원에서 우리 도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 보령·서산·홍성·서천·태안은 서해안 권으로서 항만건설, 해안국립공원개발, 비행장 개발, 업무중심도시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금산·연기·논산은 금강 권으로서 인삼종주지, 대단위 물류기지 건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고, 천안·아산·당진은 천안·아산권으로서 광역복합형도시, 온천관광개발, 신산업지대 배후신도시 등으로 개발하며, 공주·부여·청양·예산은 백제

이러한 자각과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200萬도민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을 때 자연과 문화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충남, 4,000萬이 살고 싶은 충남을 건설하는 일도 결코 구호에만 그치는 일 없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